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당대를 살았을까

책, 조선 사람의 내면을 읽다

설흔 지음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육아일기를 썼다면?

하늘이 시샘했을까 선비는 자식 복이 없었다. 자녀 다섯을 두었으나 그 중 네 명이 사산하거나 천연두 등으로 일찌감치 죽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열병을 앓아 '반편이'가 된 둘째는 사람구실을 아예 못할 줄 알았으나 요행히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이가 일곱 살 때 둘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할아버지는 고아가 된 손자를 맡아 키우야 했다. 손자는 학문을 완성해 가문을 일으켜 세우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기대와 어긋나게 자랐다.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홀로 탄식하기도 하며 16년동안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같이 기록했다. 목재 이문전 선생이 쓴 '양아록(養兒錄)'이다. 손자 숙길은 나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남겼을까? 소설가 설흔이 펴낸 '책, 조선사람의 내면을 읽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당대를 살았는지를 책을 매개체 삼아 들여다본다. 저자는 1부 '책이 읽은 사람의 내면'과 2부 '사람이 읽은 책의 내면'으로 구분해 정암 조광조의 '근사록(近思錄)'부터 중인신분 시인 이연진의 '호동거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24권의 책을 소개한다.

특이하게도 저자는 '책'의 1인칭 시점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조선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의 내면에 접근하는 서술방



식을 택했다. 그래서 매일당 김시습과 고산자 김정호, 담헌 홍대용, 백사 이항복, 소해왕후 한씨 등 인물들의 숨결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유교적 이상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려 했던 정암 조광조가 중종에게 연구하길 권하고, 능주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기 전까지 가까이했던 책은 주자학 원리를 담은 '근사록'이었다.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는 왕실 여성들을 위한 지침서로 '내훈(內訓)'을 편찬해 왕비 간택 시 매뉴얼로 삼았다.

최부는 '표해록(漂海錄)'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제주에서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해 중국을 거쳐 6개월여에 걸쳐 귀환한 과정을 8일 만에 써서 성종에게 바친 책이다. 하지만 16년후, 최부는 충정도에서 진상하는 도루묵 폐해에 대해 연산군에게 직언을 했다가 참형을 당한다.

저자는 이점돌과 이연진과 같이 독자에게 생소한 인물도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점돌은 '비운의 혁명가' 김옥균의 하인이다. 그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때 민가에 불을 지르는 등 개화파를 돕다가 붙잡혀 생을 마감했다. '상놈'인 그의 발자취가 현재까지 일부나마 남아 있는 것은 역사적에게도 의금부 죄인 심문 기록인 '추안급국안'을 통해서이다. 역관 가문 출신인 이연진은 공목길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은 시인이었다. 그는 스스로



조선시대에 시대를 앞서간 '열하일기'와 '표해록', '북학의'와 같은 책들은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선비들은 체계적으로 많은 책을 읽는 한편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을 남기기도 했다. 단원 김홍도의 '서당'.

원고를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사후 출간된 '우상인물'과 '호동거실'에 그의 시가 실려 오늘까지 전해진다.

저자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절묘하게 조합해

조선시대 정치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 책의 각 편을 긴 글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작가의 자기 작업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화요영담=등단 20년 차인 안영실 작가의 소설집. 무려 57편의 초단편소설이 수록돼 있다. 책은 20년 동안 다져온 비옥한 땅에서 자란 한 그루 영두나무에서 씩씩한 열매의 굵디고운 영두를 따 담아낸 빛깔 고운 사발이다. 저자는 자신의 한뼘소설(초단편소설)을 영두에 빗대어 설명한다. "저절로 터져버릴 듯 탕탕한 빨강의 껍질을 살짝 깨물어 한 알 한 알 씹으며 그 새콤달콤한 영두의 붉은 즙을 맛보시라."

▲100년을 견뎌내는 집 내가 짓는다=막연한 '내 집짓기'에 대한 꿈을 현실로 이르는 진정한 용기와 실천의 힘을 주는 책. 집짓기 예산에 대한 기준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과정 등 설계진행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또 건축구조의 적용제한 등 구조지침, 법규 등을 알려주면서 보증보험의 허와 실을 짚으며 집짓는 과정상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준다.

<멘토프레스·1만7000원>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서로가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는 '작은 학교' 이야기. 공교육 안에서 대안적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작은학교연대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이자 보고서다. 1장에서는 작은학교교육연대가 탄생된 배경과 의미를 말하고, 2장에서는 작은 학교의 문화와 애고 채우기, 놀이와 경기, 농사짓기, 온작품 읽기 등 작은 학교교육연대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작은학교교육연대 선생님으로서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내일을여는책·2만원>

▲라이징 스트롱=좌절과 상처를 이겨



게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있을까? 이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극복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심리 연구가 브레네 브라운이 부정적 감정을 이용해 나 자신을 더 강인하게 만드는 감정 트레이닝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독자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마·1만5000원>

▲일상을 심플하게=마음이 쉬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디자인 마스노 슌보가 전하는 일상 정돈, 마음 정돈 이야기.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겸손한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이 떠올랐을 때 생활도 마음도 심플한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나무생각·1만2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호철이는 설날이 가장 즐거워요=아이가 가장 기다리고 즐거워 했던 예전 설날과 정월대보름 풍경을 구수한 사투리와 정감 있는 그림으로 풀어놓았다. 설빔, 설음식, 차례, 세배, 동제, 풍물놀이,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 같은 세시풍속이 마음 공동체의 전통 문화 속에 아이들의 놀이로 신명나게 녹아 있다. <고인돌·1만3000원>

▲몸 잘 자라는 법=어린이들에게 제 몸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알려 준다. 제대로 세수하는 법, 머리 감는 법, 이를 잘 닦는 법, 눈이 나빠지지 않는 법, 똑바로 앉고 서고 걷는 법을 자세히 알려 준다. 또 생식기를 씻는 법,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알아채는 법처럼 꼭 필요하지만 어른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던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았다. <사계절·1만3500원>

▲우리들의 오월 뉴스=두 시대를 교차하며 펼쳐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역사 동화. 역사보다는 친구와 가족이 먼저인 아이



들이 광주로 체험 학습을 가고, 그곳에서 1980년대 아이들의 삶과 아이없는 죽음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역사 속체를 통해, 198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5·18민주화운동을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우리는 꿈꿀 거예요!=생활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는 어린이 교양 필독서. 케냐, 캄보디아, 잠비아, 보스니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 10명의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각기 다른 이유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풀어 놓는 빛나는 꿈에 관한 이야기다. <분홍고래·1만2000원>

하루하루 즐겁게 나이 들기...칠십 노인의 일상 찬미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

박혜란 지음

'드디어 노인이 되었다.'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다. 딱 '칠순'이 된 세에 새 아침, 그녀는 명실상부한 '노인 인증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육십 노인'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적이지만 '칠십 노인'은 입에 착 감기지 않나면서 말이다. 그녀는 설렌인지, 두려운인지 어리송한 기분을 느끼며 한층 가까워진 죽음



앞에서 앞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 여성학자 박혜란 신작 '오늘,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은 즐겁게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 차매를 걱정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친구를 보며 '죽음'에 대

해 생각한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늙은 아담'과 자식과 손자, 무더운 여름 마을 버스에서 느낀 행복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녀의 글쓰기는 무엇보다 유쾌하다. 가수 이적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가 들려주는 이적 이야기도 흥미롭다.

'아이들에게 당신 꿈을 투사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꿈을 꾸라'는 강연을 마친 그녀에게 한 젊은 엄마가 와서 묻는다.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녀는 이 때 '일흔살의 버킷 리스트'를 만든다. 캐리커처 배우기, 제주도 올레 일주, 뱃살 빼기, 기타 배우기, 다큐멘터리 찍기, 콘도처럼 간단히 살기 등등. 칠순을 넘어서야 일상의 새로움을 다시 느끼고 있는 그녀는 '난생 처음 살아보는 날'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기대된다'고 말한다.

박씨는 과외 없이, 공부하러는 소리없이 아들 셋을 서울대에 보낸 이야기를 담은 '민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결혼이라는 문제에 화두를 던진 '결혼해도 괜찮아', '아이들에 대하여'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1만2000원>/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맡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맡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맡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맡은터는 풍양을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